

학교생활

## 봉사 활동 시간이 부족하면 고교 지원에 불리한가요?

경기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3년간 60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현재 아이가 그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내 봉사는 물론 외부 봉사도 쉽지 않아 시간을 채우기가 거의 불가능한데요, 봉사 활동 시간이 부족할 경우 특목고를 비롯한 고교 지원에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김수연 (가명·47·경기 분당구 판교동)

# A

## 고교 지원 시 봉사 시간은 합격 유불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봉사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목고를 비롯한 고교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외부 봉사 시간을 채울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교내 봉사 활동으로 채울 수 있는 기본 시간만 이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외대부고 입학홍보부장 조경호 교사는 “특목고나 자사고 지원 시 봉사 시간을 점수화해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합격 당락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없다. 봉사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면 유의미할 수는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봉사 활동 자체가 어려운 현 시국을 고려해 2021 고교 입학 전형 내용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봉사 활동 권장 시간을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아예 고교 입학 전형에서 봉사 시간을 제외하기로 했죠.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사회 감염 위험이 높아져 대면 봉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봉사 활동 프로그램에도 제한이 있어 봉사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고교 지원 시 학생들이 봉사 시간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

### MORE TIP

봉사 활동은 일반고나 특성화고 진학 시 제출되는 학생부(내신) 성적에는 점수화돼 반영됩니다. 권장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봉사 활동 항목의 점수가 부족해 성적이 소폭 낮아지죠. 전체 지원자의 교과 성적과 출결, 봉사 활동 그리고 교내 수상 실적·임원 경력 등을 포함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각 항목 기준에 따라 합산, 각 학생의 석차백분율을 내거든요. 이는 관내 일반고·특성화고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아 인원을 추려야 할 때 쓰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각 시·도 교육청은 봉사 활동 권장 시간을 대폭 축소했으니 학생들은 이를 확인해두길 바랍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il.com



입시

## A 외고에서의 의대 진학은 극히 좁고 비효율적인 길입니다.

외고의 교육과정은 영어와 제2외국어의 비중이 매우 높고, 대부분 인문사회 과목으로 구성돼 있어 의대에서 중요시하는 과학탐구 과목과 기하, 미적분 등을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천국제고 최성조 교사는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수강하거나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다른 학교 수업을 통해 필요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겠지만 혼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종합 전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외고와 의대는 진로가 전혀 맞지 않다. 대학 입장에서 종합 전형으로 외고 학생들을 뽑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에 진로가 바뀌게 된 획기적인 전환점을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타임교육 입시전략연구소 이해웅 소장은 “정시에서 의대를 지원하려면 수능에서 과학탐구와 기하나 미적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수시 최저 기준 또한 기하나 미적분 중 하나와 과학탐구 과목으로 맞춰야 한다. 예외는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외인 경우에도 모집 인원이 매우 적거나 교차 지원 시 별점을 부과해 외고에서의 의대 진학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외고 출신자의 의대 진학 가능성이 궁금해요.

학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문·이과가 통합돼 외고의 의대 진학률이 올라갈 거라던데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문·이과 통합으로 외고도 이과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입시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 특성상 외고에서 의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합니다. 문·이과 구분이 없으면 사회탐구 과목을 이수하고 수능으로 치를 경우에도 의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맞나요?

서민정(49·서울 양천구 목동)

### MORE TIP

2021학년 정시 전형에서 계열별 인원을 분리 선발해 인문 계열 학생이 지원 가능한 의대 모집 인원은 이화여대 6명과 가톨릭관동대 3명뿐입니다. 순천향대 의대는 수학 가·나형, 사탐·과탐 응시자 모두 지원이 가능하지만 수시 최저 기준 적용 시 수학 나형과 사탐 등급을 0.5등급씩 하향해 조정 반영하고, 정시에서는 수학 가형과 과탐에 10%씩 가산점을 부여해 교차 지원 시 매우 불리합니다. 2022학년도에 대부분의 의대들이 기하나 미적분, 과탐 선택을 지정한 만큼 확률과 통계, 사탐 선택자의 의대 합격률이 높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